

특수학교 공·사립 간 시설 격차 심해

도의회 교육위, 푸른학교·익산 맹아학교 등 현지의정활동... 전공과 등 수용시설 부족 확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도내 사립특수학교인 푸른학교와 맹아학교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현지 방문, 관계자를 위로·격려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올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교육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일선학교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중심, 정책중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사립 특수학교인 안주 고산 푸른학교와 익산 맹아학교를 방문해 사립특수학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현장 확인결과 공·사립특수학교간의 시설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특수학교는 전공과 등 교육여건이 충분한데 반해 사립특수학교는 전공과 등 수용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교육위 의원들은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립간 균등한 교육기회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 등 사립특수학교에서도 전공과 개설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서 '불신자'라는 이유로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이 사실이 임의로 중고등학교 통합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인자격으로 채용 면접 실시한 학교법인 황등기독교학원에 대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도내 사립특수학교인 푸른학교와 맹아학교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현지 방문, 관계자를 위로·격려했다.

현지의정활동을 진행했다. 다. 교장에게 정계로 '정직' 요구와 성일고등 학교 교장에게 '건학'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공수처 시급성' 외친 조국 비공개에서 "이번 마지막 아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공개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주장했으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입법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관련 당·정·청 협의 공개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이번(정기국회)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안 되면 내년 1월, 또 안 되면 그 다음 국회 때, 어쨌든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도의회, 서남대 학교폐쇄 행정예고 강력 반대 성명

강용구 의원, "교육부가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서남대 폐쇄조치 철회해야"

전라북도의회는 서남대 학교폐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1일에 학교폐쇄 행정예고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8월 24일 교육부의 일방적인 서남대 학교폐쇄 예고 통보 이후 학교폐쇄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와 지역경제 악영향을 고려해 20만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학교폐쇄 계고를 철회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지난날 '서남대 학교폐쇄 계고 철회 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학교폐쇄 반대 성명에도 선포

에 섰다. 강 의원은 "지난 수년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대학 측과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대학과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1991년 개교 이래 26년의 전통을 가진, 의과대학과 학군사관(ROTC)까지 보유한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4년제 종합대학인 서남대학교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면 학생 2,000여명과 교직원 210여명은 모교와 일터를 잃고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폐교될 경우 지리산권 의료복지와 고등 교육 실현을 위한 길은 험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낙후된 전북지역은 더욱 폐쇄될 것임은 뻔하다는 게 강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인수협상 과정에서 교육부의 행태를 문제삼으며, 이를 학교정상화 방해공작으로 규정지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계고 통보조치는 한남대의 인수협상을 무위로 돌리려는 교육부의 사전 포석이며, 최근 한남대의 인수협상 포기선언이 교육부의 암묵적 포기 증명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서남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일차적 책임은 설립자 이흥하씨의 불법적인 행위에 있지만, 비리 사학인의 학교설립을 용인한 교육부의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며 교육부의 잘못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이제부터라도 사학의 재산권 보호보다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학교 위에 군림하기보다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서남대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김중회 위원장, 민생 현황 청취 적극 나서 중소상인살리기도민운동본부·건설노조 간담회

국민의당 김중회 의원(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20일, 중소기업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중소기업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과의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 민생 현황 청취에 적극 나섰다.

도당에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운동본부와 건설노조 순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운동본부의 최우종 나들가게 대표는 "우리 단체는 대기업 유통자본의 횡포로부터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지켜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출범한 단체다"고 운을 뗐다.

최 대표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지역상권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점포의 지역 진입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브랜드 입점저지 및 재벌기업 골목상권 입점저지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위한 유통법 개정 및 중소기업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하는데 뜻을 같이 한다"며 "도당위원장으로서 해당 상인위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로 이어진 건설노조와의 간담회에서는 10년 넘게 투쟁 중인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담감과 어려움을 듣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들은 건설현장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 위한 건설노동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도당을 찾았다.

특히 만연한 불법하도급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애환을 털어 놓았다.

김중회 의원은 "건설현장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의원, '최저임금 인상 보육정책' '중증 재가환자 영양관리 지원방안 토론회'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21일 두 건의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민생정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오전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로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육은 개인에게 맡겨진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 및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인심 보육 실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보육의 성장은 결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선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는 한국간이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원과 보육교사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증 재가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광수 의원은 "의퇴원 후 중증 재가 환자들은 영양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재가환자가 영양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환자유영식품 등 영양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 필요성과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진성 기자

짧아서 더 아쉬운 계절, 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남원예촌 by 컨싱턴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남원예촌 by 컨싱턴은 이랜드 호텔레저 사업부와 남원시가 함께 선보인 명품 한옥으로, 화학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로 문화재 명장이 공경이다. 훈을 담아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기품 있는 한옥의 맛이 느껴집니다. 코끝에 닿는 나무, 흙냄새와 새들의 맑은 노랫소리, 창가에 스미는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머물 자체가 휴식이 되는 남원예촌에서 비움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가을의 운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원예촌 남원시